

성역할, 성관계

& 페미돔

에서의 커뮤니케이션

Peter Aggleton, Kim Rivers, Rumina Mane
토마스 코람 연구원, 런던대학 교육부

지금까지 여성용 콘돔(페미돔)의 효용에 대한 몇몇 연구가 있어 왔지만 페미돔의 사용이 남녀의 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여성의 경제적 의존성과 남녀 간의 불평등, 판에 박힌 전형적인 성역할로 인해 여성들은 성관계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해 왔다. 이런 불평등한 관계로 인해 여성은 HIV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HIV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주요 열쇠는 여성 자신의 권한 강화이므로 여기에서 페미돔의 역할이 주목된다.

페미돔의 사용은 콘돔을 기피하는 남성들이 저항감을 보다 덜 느끼게 하고 여성들의 통제력을 보다 높여 주는데 도움을 준다. 1993년 5월 페미돔과 여성의 권한 강화, 성(性)행위시의 커뮤니케이션의 연구를 위해 WHO/GPA 연구 의정서가 계획되었다. 이 연구는 총 4개국(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멕시코, 세네갈)에서 실행되었고 UNAIDS의 지원을 받았

다. 각 지역 연구팀들은 HIV/AIDS와 관련해서 성역할이 수행되어지는 양상과 성역할의 변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른 지원 방안 없이 여성들이 단순히 페미돔을 사용하는 것은 남녀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페미돔의 사용을 포함해서 여성들의 신체와 건강과 성(性)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을 길러 줄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었다. 각국에서 윤락업 종사 여성과 윤락업을 제외한, 다른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로 두 그룹을 선택하여 각 그룹의 여성들을 다음의 주요 주제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 일반적인 성역할과 관계
- 성관계에서의 의사 소통 (Sexual communication)
- 위험에 대한 인지도
-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협의
- 페미돔에 대한 반응과 페미돔이 성관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성역할과 관계에 관한 조사 결과에서는, 성역할과 기대에 관한 여성들의 의존적인 경향을 발견하였다. 물론 각 나라별로 역할의 차별성은 존재하였지만 이들 차별성에 대한 여성들의 자각에서는 중요한 특징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여성 참가자들은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것으로 인지하였고 코스타리카와 멕시코의 여성 참가자들은 남녀의 성역할은 이미 전통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거의 모든 응답자들은 여성들은 복종적이고, 규범적인 여성의 성역할로 성(性)행위에 있어서도 여성을 제한한다고 보았다.

문화적인 기대감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행동은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때문에 제한적이었다. 연구가 진행된 모든 나라의 여성들은 가사노동이나 성관계에서 남성에게 충실히 봉사하지 않으면 남성들은 바람을 피우거나, 일부다처제 나라에서는 다른

부인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코스타리카와 세네갈, 멕시코에서는 전보다 점점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낮은 봉급으로 인해 여전히 남성에게 의존적이며 때로 성폭력이나 압력에 노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세네갈 여성들은 국경을 넘어 물품을 운송할 때 세관절차를 무사히 통과하거나 숙소, 교통수단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 성적인 회롱이나 압력을 감수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남녀관계에서 성에 관한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여성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자신감의 결핍에서부터 부끄러움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여 주었다. 몇몇 여성들은 부모님에 의해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낙인찍히는 것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성에 대해 표현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였다. 많은

여성들은 부부생활에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기 위해 언어외적인 의사전달 방법을 사용하였다. 세네갈의 경우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정형화되어 있다. 이것은 다양한 상징을 통해서 표현되는데 간단히 허리에 걸치는 옷을 입고 진주벨트를 차거나 집에서 향을 태우고 향수를 뿌리기도 한다. 반면에 인도네시아와 세네갈의 여성들은 전통문화규범을 지킴으로써 원하지 않는 성행동을 거부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종교적, 문화적 금기 때문에 오럴섹스를 거부할 수 있었다. 세네갈에서는 전통적으로 월경시에는 성교를 금기시키고 있



가난으로 인해 위험한 매춘행위를 하고 있는 극빈층 여성들을 돕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한 은행

며 몇몇 부락에서는 아기의 수유기간 중에도 성교를 금기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금기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은 원할 때면 전통적 금기와는 상관없이 폭력을 통해 아내를 복종시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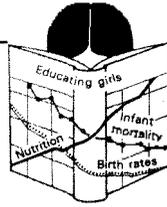
윤락여성의 경우 돈을 주고받는 금전거래의 속성상 파트너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일반 여성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성병이나 HIV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여성 참가자들도 자신들의 에이즈 감염위험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에게서 '사랑에 대한 신뢰는 아내의 미덕인 것처럼 보여

다.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 곧 훌륭한 여성이 되는 것이라는 의식은 고정적인 것처럼 보였다.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의 매춘 여성들은 HIV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감염 위험에 대한 인지도도 상당히 높았으며 고객에게 콘돔사용을 요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왔지만 자신의 남자 친구와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콘돔 사용을 요구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의 매춘여성의 경우는 종종 고객에게 콘돔 사용을 요구하지만 HIV나 성병을 피하는 주요 방법은 외국인이나 선원을 피하고 성관계 후에 세척이나 관수를 하는 것이었다.

놀라운 사실은 아니지만 모든 나라에서 안전한 성행위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여성 스스로 감염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남녀관계에서 성에 대한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제한적 이었고, 셋째, 헌신과 사랑의 관계에서 HIV 예방방법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견해를 많은 여성들이 표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조사에 참가한 윤락업종여성들은 위험에 대한 높은 인지도 때문에, 보다 안전한 섹스를 위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다고 보고한다. 일반 여성들이 보여준 주요 관심은 사랑과 안정이었고 一夫一妻의 일대일 관계가 HIV와 그 밖의 성병으로부터 자신을 상징적으



로 보호해 준다고 믿고 있었다.

페미돔에 대한 반응에서는 절대 다수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응답자와 그들의 파트너는 남성 콘돔과 비교해서 여성용 콘돔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매춘여성들은 고객을 설득하기가 훨씬 쉽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페미돔의 사용을 위해서는 명백히 여성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결정적이다. 인도네시아의 건축인부와 운전사의 아내들은, 가족계획의 현안들이 이전에 토의되었고 남성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설득해 페미돔을 사용할 수 있었다.

세네갈의 여성들은 페미돔도 성유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파트너에게 페미돔을 착용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한 예이다. 다른 지역의 많은 여성들도 페미돔을 착용할 때 파트너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페미돔의 사용은 성에 관한 남녀의 대화를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남자 또한 여전히 그들의 힘을 잃지 않고 있음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

페미돔의 사용은 성행위시의 남녀간의 의사소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조사에 참가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성병이나 HIV, 피임을 위한 보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권한 향상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사연구는 여성들이 성행동과 선택에서 두 가지 주요 요인에 의해 억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남성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는 여성을 남성에게 폭증하게 만들고 둘째, 전형적인 성역할은 여



봄베이의 매춘부들이 콘돔을 받고 있는 모습

성의 성행동을 규제하고 성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단절시켜 여성을 수동적으로 만든다.

페미돔의 사용은 다음의 맥락에서 성관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증대와 새로운 방향의 제시, 여성의 권한 향상을 가져왔다.

◇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의 윤락업 종사여성들은 어느 정도 고객과의 의사소통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 인도네시아의 남성들은 가족계획과 페미돔의 사용에 협조적이었다.

◇ 공동체 의식이 있는 곳에서는 주위의 동료들이 페미돔을 사용할 때 쉽게 페미돔을 받아들였다.

◇ 남성콘돔이 일반화되지 않은 곳에서는 페미돔이 선호되었다.

◇ 페미돔도 성유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성개방에 보수적인 사회에서 페미

돔은 성관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상호협약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4개국의 모든 여성들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애인과 고객을 포함해서, 모든 남성이 남성용 콘돔의 사용에 거부 반응을 보였다고 대답하였다.

페미돔의 소개는 단지 페미돔의 사용에 국한되지 않고 여성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페미돔은 여성을 보호한다. 이것은 HIV나 성병, 임신을 원하진 않지만 남성용 콘돔의 사용을 거부하는 남자들과 살아가야 하는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A)**

번역/이상은

이 내용은 본회가 단체회원으로 가입한 IAS(국제 에이즈연합기구)의 Newsletter No. 8에서 발췌 번역한 것입니다.